코로나19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종일 님

글. 박다연(편집부) 사진. 주효상

어르신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실버 코너는 큰 글씨로 표기합니다.

장기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감염병은 우리 일상의 많은 부분을 바꾸어놓았지만, 질병의 감염과 확산을 막기 위해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봉사자 및 전문 인력들은 시민의 일상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막이 되고 있다. 일산서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하고 있는 박종일(65) 님 역시 마찬가지. 공공의 안전을 위해 과감하게 현장에 뛰어든 그를 만나봤다.

제2의 인생을 준비하며 얻게 된 일자리 기회

대기업에서 30년 동안 근무한 후 퇴직한 박종일 님은 올해 1월부터 일산서구보건소 감염병관리팀에서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해오고 있다. 그가 지원한 분야는 고양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이는 퇴직한 전문 인력이 지역 내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면서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참여 대상은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의 퇴직한 전문 인력이며 업무 관련 3년 이상 경력을 가졌거나 국가 자격 등을 소유한 고양시민이어야 한다. 경력형 일자리사업의 활동기간은 최대 10개월이며, 고양시 생활임금(시간당 1만 140원)을 적용한 보수가 지급된다.

"퇴직 후 노인요양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요양원을 운영하는 것이 오랜 꿈이었거든요. 그러다 이 자격증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게 되었고, 마침 시에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신중년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한다. 오전에는 외부 선별진료소에서 해외입국 자가격리자를 안내하는 일을 하고, 오후에는 콜센터 상담 업무를 맡아 진행하고 있다.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 방법과 기준·검사방법, 능동감시대상자와 밀착접촉자 등의 정보를 안내한다. 다양한 업무 속에서 바쁠 법도 하건만, 그는 여유 있게 모든 일을 소화하고 있다. 보다 친절하게, 자세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그는 오늘도 현장을 바삐 오간다.

방역복을 착용하고 시민 안내에 나선 박종일 님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는 것

하루 종일 다양한 업무를 소화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지만, 주어진 일이 있고 스스로 이를 충분히 해낼 수 있음에 만족하고 있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를 열심히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되어준다.

"경력형 일자리 근로자로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국가적 위기상황 속에서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있다는 자부심이 업무의 가장 큰 장점 같아요.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코로나19의 최전선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된 데는 가족들의 응원도 큰 힘이 됐다. 시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그를 뿌듯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주는 가족들이 있어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좀 더 집중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어떤 일이든 맡겨만 주시면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이 일자리가 끝나면 다른 분야의 일자리에도 도전해보고 싶고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